



## 싯달타연못에 마음껏 “봉축”

### 룸비니동산의 부처님오신날

본지 고영배 사진기자 '부처님의 고향 가다' ㉔

4월 30일, 네팔의 부처님오신날(네팔력 1월15일)이다. 룸비니 동산의 아침은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새소리로 가득했다. 망고나무 숲길에 걸터앉아 룸비니의 봉축행사는 인근 사찰 신도들의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부처님을 모신 작은 트럭을 앞세우고 그 뒤를 세계 각국의 스님과 신도들이 줄지어 따르며 아기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흥겨운 찬불가와 염불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불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부처님의 고향에 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

미야데비 사원터의 장마는 잘 되어 있었지만 식당과 상점등의 부대시설이 부족했다. 정부의 자금과 기획력 부족으로 성지순례자 정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순례자들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미야당 자리는 발굴작업중 이어서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발굴현장을 방문스님(룸비니 대성직가사 주지)의 도움으로 네팔측 발굴단장인 바산타 비다리씨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부처님 모신 트럭 앞세우고  
스님과 신도들 뒤따르며  
아기부처님 오심 축하  
흥겨운 찬불가 염불소리  
망고나무숲은 환희 가득



◊스투파 중앙에서 발견된, 아기부처님이 7살을 걸으면서 밟았다는 돌. 한국언론으로는 본지가 첫 공개.

주위를 둘러보니 순례자들은 미야데비 사원의 부처님 탄생 장면을 부조한 돌에 향, 꽃, 초 등을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있었다. 미야데비 부인이 출산 후 목욕을 했던 싯달타 연못에서는 순례자들이 머리와 얼굴에 성스럽게 물을 바르고 있었다. 마치 성수로 마음을 씻는듯 했다.

오후의 순례를 마치고 별이 쏟아져 내릴듯 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연등이 켜진 룸비니로 향했다. 연등은 한국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풍이로 된 사각등으로 만든 것이었다. 등은 서울 대학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도들에 의해서 네팔로 보내진 것이다. 화려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저마다의 정성과 감사의 빛을 밝히고 있었다.

새벽녘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다시 느끼고자 룸비니를 찾았다. 밝아 오는 태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추듯 어둠을 일깨우고 있었다. 경쾌스러운 룸비니를 거닐다 한곳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서 가장 뛰어나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큰 법구름을 베풀어서 큰 법비를 내려 장차 안락케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탄생 계승이 꽃가에 들려오는듯 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룸비니동산에서 개최된 퍼레이드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불제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등으로 장식된 아쇼카석주.

협찬: 대한불교예술원 (0357)542-3296



◊싯달타 연못에서 순례자들이 머리와 얼굴에 물을 바르고 있다.



◊미야당 부처님탄생 부조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 모습.



▲한국의 신도들에 의해 밝혀진 1만 연등이 미야데비사원 싯달타 연못에 드리워진 모습.



▶부처님의 지비처럼 느껴지는 미야데비 사원의 일출.

불안하게 지켜볼것인가

안심하고 투자할것인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알, 불안해서...

과열이니, 거품이니  
믿을 수가 없어가지!

이젠 맘 편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

예상수익률 연최고 21%  
삼부기업형 뮤추얼펀드

이제 삼부기업형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저의 삼부기업형 뮤추얼펀드는 증권, 우량중소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 고부가 명상기업 등에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저의 삼부기업형 뮤추얼펀드는 고객이 원하는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운영방법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높은 수익의 등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저의 삼부기업형 뮤추얼펀드는 국내외 최정상급 펀드컨도메니지와 벤치마크펀드(기업투자 심사기)를 보유, 경쟁력있는 기업발굴과 자금운용능력으로 높은 수익, 안전투자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부파이낸스

부 산 : (051)636-7800  
서 울 : (02)569-7100